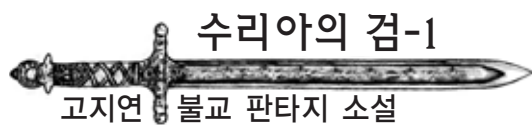


“여기선 ‘산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라고 해”



암흑속의 두 소년③

감옥에 갇힌 두 소년의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리고 칼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잠부주에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불과 6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라의 이름은 마드라스. 그리고 칼키의 집안은 개국에 공헌을 한 귀족이었다. 루드라 신의 비호를 약속 받은 최초의 국왕, 노제스는 국가의 성립을 선포한 후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러나 전쟁은 없었다. 나라를 그들에게 가둠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서 식량을 보호하고, 이름이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든 위협적인 괴수들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세금과 부역만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왕 노제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속에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훌륭한 남자였던 것이다. 그가 죽자 둘째 아들인 노부가 왕위를 이었다. 잠부의 오랜 풍습으로 첫째 아들은 무조건 신의 아들로 바쳐져서 평생을 신에게 귀의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수행과 기도였는데 노제스의 장남 캄포 역시 처음엔 국가의 신관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사방을 나갔던 노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따로 군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호위병이라는 것도 없었다. 그래도 국왕의 죽음이나 부라부라 조사대가 만들어졌다. 결론은 괴수의 습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내려졌다. 주민들에게 슬픔 외의 동요는 없었다. 드문 일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었다. 왕의 장례식이 끝나자, 한때 마을의 총장이었던 귀족 대신들은 근심에 쌓였다. 왕의 부재가 가지고 온 공백은 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처음엔 대신 중의 한 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금방 개국의 신탁을 받은 핏줄에서 왕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대두되며 우세를 되찾았다. 국가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에 대한 또 다른 결과일까. ‘모두가 형제’ 라던 의식은 희미해졌고, 점점 더 혈족과 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부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캄포는 신관이였다. 그러자 한 대신이 일단 캄포를 통해 신탁을 청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었다. 모두 그 길로 캄포를 찾아가다. 노부가 죽은 지 21일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캄포는 대신들을 차분히 맞이하였다.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두 눈동자, 아니 세 눈동자는 그들을 지긋이 응시했다. -예로부터 잠부주에서는 루드라신을 숭배하였기에 캄포 역시 미간에 신의 세 번째 눈을 상징하는 눈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다- 캄포는 대신들의 요청을 받자마자 신탁 의식을 신속하게 준비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신에게 바칠 제물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이렇게 준비된 의식은 신관이 화염에 휩싸인 바퀴 안에서 춤을 추며 땅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신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캄포도 꼬박 사흘 동안 홀린 듯 춤을 추다가, 드디어 신의 목소리를 귀족 대신들에게 전하였다. “캄포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말도록 하라.” 놀라운 일이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왕이 되다니. 그러나 신탁에 속임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금 고개를 가웃거리려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으나, 감히 그 결과에 반대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캄포는 마드라스의 3대 국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뭐가 크게 달라졌어?”

“모든 게 더 좋아졌다. 나라는 점점 더 넓어졌고 새로운 질서와 규칙들이 생겨났어. 그 규칙들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나 혼란도 전보다 줄어들었지. 캄포왕이 노부왕의 일을 근거로 호위대와 군대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전쟁은 없었어. 영토 확장도 여전히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부락에선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마드라스의 주민이 되고 싶다고 찾아올 정도야.”

“뭐야?”
무니는 칼키 쪽에서 몸을 좀 떼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한 건데?”
“그거야 당연히 죽을 만하니까.”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너 제 정신 맞아? 나더러 인간이 확실하냐고 묻더니, 너야말로 혹시 이상한 것에 쓰인 거 아니야? 너 사람 맞아?”

그러나 칼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니의 얼굴을 멍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너 진짜 미쳤구나! 제 정신이 아니야.”

무니는 칼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칼키는 재미있다는 듯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래, 어쩌면, 제 정신이 아닐 지도 모르지. 아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내 눈에는 자주 보이니까 말이야. 네 말대로 제 정신이라면 안 보일 것들이...”

그렇게 말하며 칼키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니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눈을 번쩍 뜨더니, 다시 무니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런데, 뭐?”

“너한테서는 보이지 않아. 도대체 넌 누구냐?”

“갑자기 무슨 소리! 뭐가 보였다 그랬다가, 안 보인단 그대야. 맞아! 넌 확실히 미친 거야.”

칼키는 무니의 반응이 웃긴지 킁킁 웃음을 삼켰다.

“하야간 캄포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난 그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봤어. 그 어둠은 끝을



삽화·김홍연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사악해. 나쁘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할 정도로. 그는 마드라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봐서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었어. 적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저질렀던 건데, 그만 실패를 해버려서...”

칼키는 말을 잊지 못하고 짐짓 먼 산을 바라보는 척을 했다. ‘이 녀석은 정말 미친 게 맞아.’ 무니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마을을 떠난 후, 그는 많은

걸 보고 겪었다. 그래서 간혹 마을을 찾아오던 이야기꾼의 말 대부분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첫 충격은 금방 희미해져 갔다. 무니와 난다는 그 이야기꾼이 걸었을 길보다 더 많은 길을 걸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칼키 같은 소년은 처음이었다. 언젠가 어떤 마을에서 만난 한 똑똑한 소녀는 난단을 향해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어쩌면 칼키도 그런 종류의 병에 걸린 모양이라고, 무니는 생각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말

이다.
“야, 너 지금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칼키는 무니의 생각을 눈치 챌 듯 물었다.

“네가 나라면 어떻게냐? 도무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게다가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자기한테는 보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니. 보통 그런 걸 미쳤다고 한다고.”

“흠, 그래,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겠다. 너한테 들으니까 이상하게 더 되달네.”

칼키는 괜히 코를 훌쩍이며, 상처 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니는 자신의 말이 좀 심했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칼키 뿐이고, 게다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형편이다. 아무리 제 정신이 아닌 녀석이라고 해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말이다.

“네 말이야.”

상처 받은 표정을 내내 짓고 있던 칼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응?”이라고 대답하며 눈을 반짝였다.

“앞으로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신까지 나설 일이야, 그게? 네 말대로 여기서 늪지도 죽지도 않은 채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정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날 죽였어야 하는 게 맞을걸. 그 후에 내가 지옥으로 직행하든 쥐나 개미로 태어나든 말이야. 여기에 인간이 갇힐 일이 거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 어떻게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일일이 신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원인도 결과도 없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어디쯤엔가 꼭 박힌 점과도 같아.”

“그럼 이제 어쩔 셈이야?”

“글쎄, 운이 좋았던 자들은 소멸 했다더군.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바람직한 경우지. 신이 자비를 베풀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본 들, 이미 그곳은 자신이 살던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 어쩌다 찾아오는 소멸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야. 청소처럼 한 번씩 감옥을 비우기도 한다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운이 나쁘면 비껴 간다더라. 여기 어딘가에는 9000년 전에 잡혀 온 정령도 있다. 참 안 됐어.”

칼키는 다시 자리에 벌렁뻗 누우며, 정말 안타깝다는 듯 흐를었다. 그런 그의 태평스러운 모습을 보니 무니는 오히려 답답해졌다.

“야! 그럼 너도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거라는 소리야?”

“아니!”

칼키의 단호한 대답에 무니의 눈에 기대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런 그를 흘깃 쳐다본 칼키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선 ‘산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라고 해.”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법사포수 후 사찰·포교원 등 즉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랍,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우일스님 문종의 수석만제자

불광미술원 단청, 탕화, 계급 3절장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